

자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2009)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약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1.2명 늘었으며, 10년 전인 1998년에 비해 41.4%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은 10대 사망순위 2위, 20대와 30대 사망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75세 이상의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급증하여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배경을 설명하는 논리는 학문분야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고 실제로 그 원인들도 복합적일 것이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최근의 자살급증과 현대 사회적으로 만연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관련지어 설명하고(송동호, 이흥식, 전여숙, 정유숙, 1996;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Suominen et al., 2000; Ebmeier et al., 2006), 사회학에서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 등을 자살의 원인으로 제안하고(Simpson & Conklin, 1989; Stack, 1993), 철학과 종교학에서는 가치관의 상실 등을 제안해 왔다(Narveson, 1986; Perlin, 1975).

하지만, 최근에는 방송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일상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타인의 자살에 관한 보도에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동안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김인숙, 2009; 정승민, 박영주, 2009). 예를 들어, 2008년 10월에 연간 전체 자살자 중 13.9%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2007년의 10월 평균 대비 68.8%가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2008년 10월의 갑작스런 자살률 증가는 2008년 9월 8일에 발생한 연기자 안재환의 자살,

그리고 같은 해 10월 2일에 발생한 연기자 최진실의 자살 이후 모방자살이 급증하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연기자의 자살 이후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하기는 불행히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¹⁾. 이처럼 유명인들의 자살은 전염병과 같아서 이들의 자살에 대한 보도는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Phillips(1974)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간 이후 유럽 전역에서 소설의 주인공과 동일한 복장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모방자살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모방자살 또는 베르테르 효과는 실제 인물의 자살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설이나 영화 속 가상 인물의 자살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자살이 미디어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과학 연구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디어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모방자살은 학문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허태균, 장훈, 2008; Goldney, 2001).

최근의 연구들에서 미디어에서의 자살보도가 뒤따르는 자살의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Pirkis & Blood, 2001a, 2001b, 2001c).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대대적인 자살보도가 있었던 시점의 직후에 자살이 급증하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Fekete & Macsai, 1990; Gundlach & Stack, 1990). 하지만 연구방법과 연구윤리적 한계점으로 인해 그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확

1) 문화일보 2008년 9월 17일자 ‘안재환 모방 벌써 3건...충격’, 동아일보 2008년 10월 5일자 ‘최진실 베르테르 효과...전국 자살 사고 잇따라’

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욱이 그러한 영향이 일어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규명도 거의 이론적 제안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그 보도를 접하는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국 수용자들의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 기억, 태도를 통해 자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자살보도의 영향을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줄 것이며, 동시에 모방자살 효과에서 사회학습적 기제의 역할을 확인하는 학문적 기여를 할 것이다.

미디어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모방자살이란 개인의 사적인 결단, 사회적 무관심의 결과, 유전적인 소인 등과 같은 요인 이외에 타인의 자살이 계기가 되어 자살하는 경우를 뜻한다. 즉 한 사람이 자살을 함으로써 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다. 특히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특정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정승민, 박영주, 2009).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의 자살보도는 자살 원인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자살의 동기에 대한 추측을 흥미 위주로 작성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뉴스,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자살에 대한 동기를 추측하고, 자살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장례식을 생중계 수준으로 보도하며, 장례식에 조문 오는 연예인들을 집

중 취재하는 등 연예인의 자살을 뉴스 상품화하여 모방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김인숙, 2009).

이러한 모방자살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이다(Pirkis & Blood, 2001c). Bandura(1973)는 사람들이 사회현상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은 그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고, 자신과 관찰자를 동일시하기 쉬우며, 모방행동에 대한 억제가 약해지기 때문이다(허태균, 장훈, 2008).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미디어를 통해 보고 배운다고 할 수 있다. 모방자살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극소수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며,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상철, 조용범, 1999). 물론 이러한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살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자살에 대한 강한 내적 억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살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이누미야, 한성열, 2004).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미디어에 의한 반복된 자살보도는 자살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의 한 예로 연기자 안재환의 자살이 수십억 원의 부채로 인한 괴로움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자, 평소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던 학원장이 유서를 남기고 안재환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

의 차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²⁾ 이러한 모방자살의 경우, 자살자는 안재환과 본인을 부채에 시달리는 괴로운 사람으로 동일시하였을 것이고, 미디어의 반복적인 자살보도로 인해 자살자 본인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약해졌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살을 통해 거액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 강화물을 얻었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미디어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냈고, 이 요인들의 역할은 사회학습적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보도 내용의 사실성이다. 실제 자살 사건의 보도가 허구의 이야기보다 모방자살을 일으키는 확률이 더 높다고 밝혀졌는데(Phillips, 1989), Stack (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 자살 사건의 보도로 인한 모방자살이 허구의 이야기로 인한 모방자살보다 4.03배 자살률이 더 높았다. 이는 사회학습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과 학습자 간의 유사성이나 대상, 보상, 처벌의 구체성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Pirkis & Blood, 2001c). 그러나 베르테르 효과라는 단어의 유래가 소설 속 주인공의 자살이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모방자살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허구적 이야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허구적 이야기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자살하는 주인공을 미화하거나 자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수용자에게 자살의

보상으로 지각될 수 있고 모방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Gould, 2001; Schmidtke & Hanfner, 1998).

둘째, 자살 보도의 주인공이 유명인인가 일반인인가 하는 점이다. 연기자 안재환의 자살 보도 이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연기자 최진실의 자살보도 이후 역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여러 번 계속되었는데, 유명인의 자살에 의한 모방자살이 일반인의 자살에 의한 그것보다 14.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Stack, 2000). 셋째, 미디어 유형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신문 보도가 TV 보도보다 모방자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ck, 2000). 신문 보도도 자살 보도 내용이 1면에 실리거나 또는 대대적으로 실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Gould, 2001). 이는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면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게 되는데, 신문은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그 정보를 반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장과 반복노출이 불가능한 TV 보도보다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가 모방자살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내용(기사, 영화, 도서, 음악 등), 매체(TV, 라디오, 지면, 인터넷 등), 그리고 수용자(관객, 시청자, 독자 등)가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미디어의 속성 상, 자살 보도가 수용자의 인지적 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태도변화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인지적 관점은 정보노출이 행

2) 서울신문 2008년 9월 16일자 '베르테르 효과? 안재환 모방자살 잇따라'

동의 변화에 이르는 과정을 정보에 대한 주의, 이해, 수용의 과정을 거쳐, 그 정보의 내용을 기억하고 나중에 행동순간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해왔다(McGuire, 1978). 미디어에서의 자살보도(묘사)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도 미디어 수용자들의 자살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논리가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김병철, 2010; 김인숙, 2009; 서에스더, 2010).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직접적으로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자살생각이나 자살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특히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자살이나 자살자에 대한 긍정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의 자살보도에 포함된 자살자에 대한 잠재적 보상(자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자살자의 어려움 해결 등)이 자살태도나 자살생각과 같은 인지적 변화를 수반하고, 이에 따라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살보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미디어 수용자 측면을 고려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수용자가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냐이다.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의 자살보도는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김연중, 2005). 이러한 언론의 자살보도행태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대체자라는 시각으로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도 있다. 국민의 알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정보유통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권리는 일반 국민들과 언

론기관이 함께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이재진, 2005). 특히 유명인의 자살과 같은 경우는 그가 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마련인데, 이는 대중적 관심의 대상인 유명인들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들의 사후에까지 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재진, 2004). 이러한 두 가치의 현실적인 충돌이 미디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모방자살의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동시에 자살보도에 대한 알권리와 부정적 영향의 인식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엠브레인에 등록된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중 성별과 지역을 안배하여 300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조사 시기는 2010년 1월 7일부터 11일 까지였다.

측정도구와 절차

일반인들의 자살과 자살보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모방자살에서 사회학습적 심리기제가 하는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그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물어보았고, 평소 어떤 매체를 통해 주로 뉴스를 접하는지와 하루 평균 뉴스를 접하는 시간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자살보도가 얼마나 자주 전달된다고 기억하는지에 따라 자살보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상의 내용을 물어보았다.

둘째, 언론의 자살보도는 자극적인 내용이 강조되기도 하고,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지도 한다. 이러한 보도내용의 질적차이를 응답자들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식의 차이에 따라 자살보도와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언론보도에 흔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15개의 보기 중에 모두 고르도록 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15개의 보기는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2004)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모방자살의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언론보도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내용들(자살방법, 자살사건의 미화 등) 8개, 최대한 함께 전달해야 할 내용들(자살충동 극복사례, 주변인의 고통 등) 7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들이 실제 국민의 알권리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단순한 호기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의 문항으로 물었다. 그리고 호기심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민의 알권리만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보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과 동일한 15개의 보기 중에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또한 언론 보도가 자살을 부추진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구성된 두 문항으로 물어보았으며,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과 동일한 15개의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언론의 자살보도 행태를 알아보고, 실제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자살보도의 방향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응답자들의 자살보도에 대한 인식이 애초에 다르게 형성되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보도시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보만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살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나 진실규명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지속하고 공개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으로 물었다. 그리고 자살을 통해 자살자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자살 이후 자살자에 대한 비난이 줄고 긍정적 평가와 동정이 늘어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지를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이론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살보도를 접하고 나서 자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자살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보았거나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를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물어보았다.

결 과

참여자 특성과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자	141(47%)
	남자	159(53%)
연령	20대	61(20.3%)
	30대	83(27.7%)
	40대	74(24.7%)
	50대	61(20.3%)
	60대	21(7%)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은 60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소 뉴스를 주로 얻는 매체, 일평균 뉴스 구독 시간, 언론을 통한 자살 보도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평소 어떠한 매체를 통해 주로 뉴스를 접하는지 묻는 질문에 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TV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이 40%를 차지하였다. 신문을 통해 뉴스를 주로 접한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응답자의 68.7%가 하루 평균 1시간 이하로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한 답변도 31.3%에 달하였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를 얼마나 자주 접한다고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자살 관련 보

표 2. 매체구분, 사용시간, 자살보도 빈도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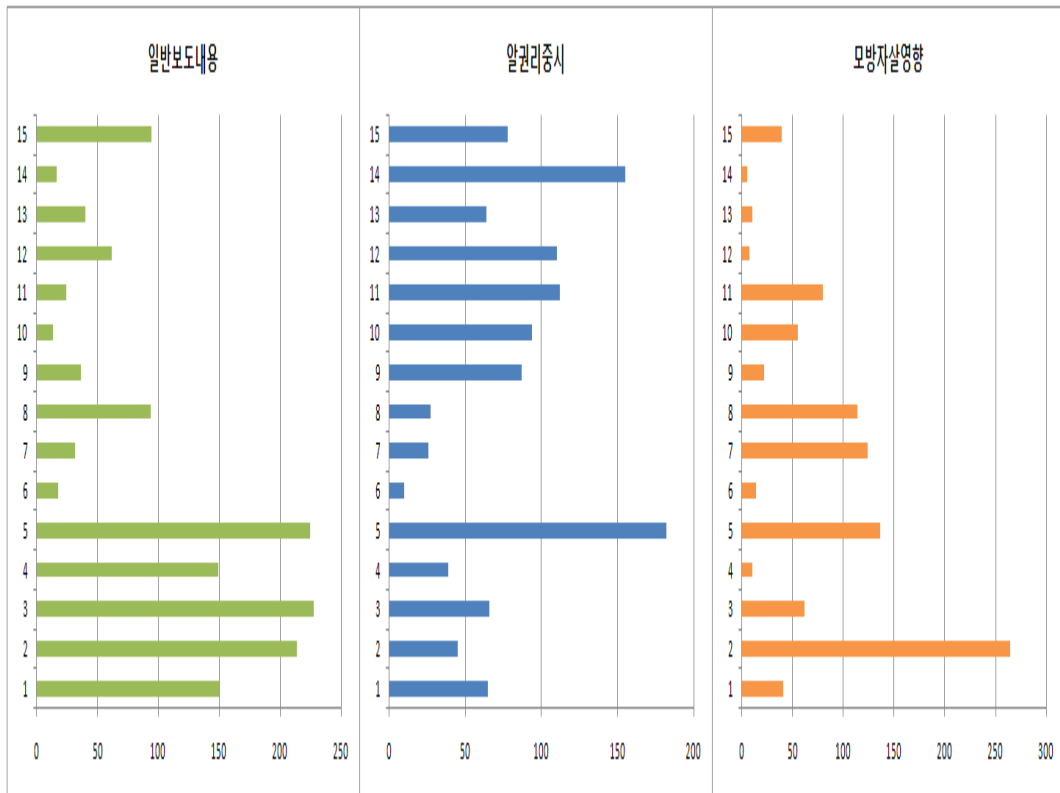
평소 뉴스를 주로 접하는 미디어	신문	19(6.3%)
	인터넷 포털	153(51%)
	TV	120(40%)
	기타(라디오, 무가지 등)	8(2.7%)
하루 평균 뉴스를 접하는 시간	10분 이하	17(5.7%)
	10분~30분	87(29%)
	30분~1시간	102(34%)
	1시간~2시간	75(25%)
자살 관련 보도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	2시간 이상	19(6.3%)
	하루에 한번	46(15.3%)
	3~4일에 한번	71(23.7%)
자살 관련 보도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	일주일에 한번	60(20%)
	이주에 한번	80(26.7%)
	한 달에 한번	43(14.3%)

도를 접한다고 답하였다.

매체 종류에 따라 자살 보도를 접한 횟수에 대한 지각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chi^2 = 14.372, p = .278$), 하루 평균 뉴스를 접하는 시간과 자살 관련 보도에 노출되는 빈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chi^2 = 23.424, p = .103$).

언론의 자살보도 행태 인식

언론의 자살보도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그리고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내용



Y축 범례: 1) 자살자의 신원, 2) 자살방법, 3) 자살장소, 4) 자살시간, 5) 자살원인, 6) 자살자의 사진, 7) 자살자(사건)의 미화, 8) 자살장소/방법관련 사진/영상, 9) 자살의 징후소개, 10) 자살관련 도움방법, 11) 자살관련 잘못된 상식, 12) 주변인의 고통, 13) 자살에 대한 부정적 평가, 14) 자살충동 극복사례, 15) 최근 자살률

그림 1. 언론의 일반적 보도내용,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내용,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내용 인식 비교

들을 15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에는 다중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문항별 응답의 빈도를 합산한 후 그 결과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응답 내용의 순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살에 관해 언론에 주로 보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들과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항목들 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였다 ($\rho = .123, p < .05$). 위의 범례 중 1번에서 8

번 사이의 항목은 언론의 보도원칙인 육하원칙에 의거한 내용과 신문이나 영상자료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 내용들인 동시에 한국자살예방협회(2004)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가급적 노출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로 지목받았으며, 9번에서 15번까지의 항목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최대한 포함시키도록 권장하는 내용들이다. 즉 1번에서 8번까지의 보기에 더 많은 응답을 한 사람들은 언론의 부정

표 3. 언론의 일반적 보도내용의 긍정적 / 부정적 내용 지각 차이

	국민의 알권리		모방자살 영향		
	부정적 내용	긍정적 내용	부정적 내용	긍정적 내용	
언론 보도 내용	부정적 내용	87(48.9%)	69(56.6%)	144(54.8%)	12(32.4%)
	긍정적 내용	91(51.1%)	53(43.4%)	119(45.2%)	25(67.6%)
	χ^2	$\chi^2 = 1.711, p = .198$		$\chi^2 = 6.474, p = .013$	

적 보도내용을 더 많이 지각한 사람으로, 반대로 9번에서 15번까지의 보기에 더 많은 응답을 한 사람들은 자살보도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보도내용을 더 많이 지각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카이제곱검증을 시행한 결과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 내용의 서열 상관을 비교한 결과와 응답 내용간의 카이제곱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인들이 자살보도에 가급적 포함되어야 하는, 모방자살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의 언론 보도가 이러한 내용보다는 사건 전달과 흥미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살보도에 대한 국민태도

자살보도가 실제로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언론의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매체에서 자살보도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한 응답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살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언론에서 자살보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역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자살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단순한 호기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언론에서 자살보도를

표 4. 자살보도에 대한 국민태도 상관

	1	2	3	4
1 국민 알권리	1			
2 단순 호기심 충족	.109	1		
3 모방자살의 원인	-.088	.278**	1	
4 자살보도 전면금지 찬성	-.162**	-.020	.344**	1
	3.78(1.24)	4.40(1.23)	4.62(1.15)	4.03(1.47)

** $p < .01$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간에도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이론의 검증

사회학습이론으로 모방자살의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자살자나 그 주변인을 고려하여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긍정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살한 고인에 대한 진실 규명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 및 진실 규명 차원에서 자살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각 응답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론의 자살보도에서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는 가능한 최소화 하는게 좋다는 응답과 자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중지하는게 좋다는 응답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반면 자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과 자살자의 부정적 측면을 계속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자살자에게 일련의 문제나 혐의가 있었다더라도 자살 이후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헤치거나 공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태도를 확인한

부분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살이 자신의 문제나 과오를 덮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살보도에서 자살의 이득을 감지하는 것이 실제로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자살함으로써 자살자가 어떤 이득(금전적, 사회적 관심, 복수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긍정적 결과)을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와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사람이 자살한 이후에 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줄거나 긍정적 평가나 동정이 늘어난 형태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자살보도를 접하고,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자살에 대한 태도, 자살의 가치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자살보도를 접하고, 자살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살자가 자살을 통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나, 자살로 인해 자살자에게 가해지던 비난이 감소하고 반대로 긍정적 평가

표 5. 자살보도와 진실추구에 대한 인식의 상관

	1	2	3
1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 최소화	1		
2 자살자에 대한 진실 규명 중지	.146*	1	
3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 조사와 공개	.013	-.186**	1
	4.23(1.27)	3.74(1.45)	3.60(1.33)

* $p < .05$, ** $p < .01$

표 6. 자살보도에 의한 긍정적 지각과 자살인식에 대한 차이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자살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본적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살자가 자살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있다	35(47.5%)	45(19.9%)	44(45.4%)	36(17.7%)
	없다	39(52.7%)	181(80.1%)	53(54.6%)	167(82.3%)
	χ^2	$\chi^2 = 21.380, p = .000$		$\chi^2 = 25.618, p = .000$	
자살자를 향한 비난이 줄고 긍정적 평가와 동정이 늘어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있다	61(82.4%)	138(61.1%)	77(79.4%)	122(60.1%)
	없다	13(17.6%)	88(38.9%)	20(20.6%)	81(39.9%)
	χ^2	$\chi^2 = 11.400, p = .001$		$\chi^2 = 10.928, p = .001$	

와 동정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살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지’와 ‘자살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하였다.

언론의 자살보도를 접한 후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거나, 자살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2%와 62.5%에 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이 드러났다. 이는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표 7. 사회학습이론의 실질적 영향 검증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다	
		있다	없다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있다	13(54.2%)	61(22.1%)
	없다	11(45.8%)	215(77.9%)
	χ^2	$\chi^2 = 12.217, p = .002$	
자살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있다	15(62.5%)	82(29.7%)
	없다	9(37.5%)	194(70.3%)
	χ^2	$\chi^2 = 10.851, p = .002$	

논 의

본 연구는 자살보도를 얼마나 자주,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접하는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각과 인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살보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지각과 태도가 실제로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습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살보도의 지각차원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언론 매체로서의 기능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51%가 평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근거라 할 것이다. 단순히 다수가 이용하는 매체라는 이유를 벗어나 포털사이트 뉴스의 조회 수 경쟁이 결과적으로 부실한 기사를 양산하고 올바른 인터넷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재신, 이영수, 이민영, 2009). 이는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이 주 수입원으로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야 하는 포털의 속성상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기사들이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경향을 갖게 되며 편집도 그 같은 방향으로 이뤄지기 쉽기 때문이다(박광순, 안종묵, 2006).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온라인 기반 뉴스 공급사 70여개 중 20여개에 달하는 연예 분야 뉴스 공급사들이 있다. 대체로 영세하고 거의 전적으로 포털에 수익 기반을 의존하고 있는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선정적이면서 부실한 기사들을 쏟아냈고 그 결과 포털 뉴스의 상업화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예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상세 검색 사이트³⁾에서 연기자 안재환의 자살이 최초로 보도된 2008년 9월 8일부터

2008년 10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올라온 뉴스들 중 제목에 ‘안재환’이 포함된 기사는 2,306건에 달했으며, 연기자 최진실의 자살이 최초로 보도된 2008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올라온 뉴스들 중 제목에 ‘최진실’이 포함된 기사는 검색 최대 한계치인 4,000건에 달했다. 이는 안재환 기사의 경우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77개, 최진실 기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33개 이상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한 곳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자살 보도에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모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주로 접하는지에 따라 자살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가 달라지는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을 통해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내용들이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요인들과 동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그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즉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도 알권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결국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 위주로 자살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보도가 자살자의 과오를 덮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언론보도는 자살자의 부정적 정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진실 규명이나 부정적 측면 공개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태도나 인식은

3) <http://news.naver.com/main/search/powersearch.nhn>

한국사회에서 자살자 자신이나 그 주변인들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려는 유교주의적 문화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살예방 측면에서는 매우 역기능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에서 자살자나 자살 자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로 이르게 한 현실적 어려움이 자살로 인해 해결 되었다고 암시하는 것은 그러한 보도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살행동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 자살로 인해서 자살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수록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의 문제를 자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러한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지각은 실제 자살행동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습이론으로 (최소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모방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이 개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최대한 제거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살의 결과가 긍정적 강화물로 작용하여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체계는 범죄의 피의자가 자살과 같은 사유로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 또한 모방자살을 방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자살처럼,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중에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에 자살 이전에는 매우 부정적이던 미디어의 보도가 자살 이후에

는 매우 긍정적이고 동정적으로 바뀌는 현상은 수용자들에게 자살에 대한 보상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피의자가 자살을 하더라도 그의 범죄 사실을 끝까지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게 된다면 자살이 범죄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학습이론의 영향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살 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아니오로만 답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심각한 수준의 시도였는지, 아니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인 심리적 변인을 밝히는데 부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에 어떠한 내적 기제가 자살보도에 대한 영향력 판단이나 사회학습이론 형성에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보다 심도 깊은 심리학적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자살보도의 영향력을 보다 잘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의 자살과 청소년의 자살은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김효창, 2006)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영향과 사회학습이론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미디어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

도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심리적 본질에 근거한 체계적인 접근이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자살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과 후의 결과들을 비교, 종합하여 미디어의 노력이 모방자살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제시하고 있다(Michel, Frey, Wyss & Valach, 2000; Pirkis et al., 2009). 그러나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 제시 전과 후의 보도 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보도는 자살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기도 하는 사건을 더욱 확대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였다(김연중, 2005). 결론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자살보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위해 자살보도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의 필요하다는 결론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자살이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언론의 자살보도가 사회학습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병철 (2010). 자살 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8(1), 41-63.
- 김연중 (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6), 140-166.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의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15-36.
- 김효창 (2006). 성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5-33.
- 박광순, 안종묵 (2006). 포털사이트 프론트(front) 페이지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성/경성뉴스, 소재목, 하이퍼링크, 뉴스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199-226.
- 박상철, 조용범 (1997).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서울: 학지사.
- 서에스더 (2010). 부모 및 친구관계 정서적친밀도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후유증이 언급된 자살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 청소년 자살기도자의 정신의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35(6), 1366-1373.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 정승민, 박영주 (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2), 153-182.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2004). 사생관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31-82.
- 이재신, 이영수, 이민영 (2009).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환경이 뉴스통신사의 역할에 미친 영향. 언론과학연구, 9(3), 355-387.
- 이재진 (2004).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 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

- 으로. 한국방송학보, 18(3), 7-50.
- 이재진 (2005).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의 알 권리의 기원과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1), 231-264.
- 통계청 (2009). 2008년 사망원인통계.
- 한국자살예방협회 (2004).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 보도 기준.
- 허태균, 장훈 (2008). 자살 예방과 대중매체의 역할.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한국자살예방협회 편, 서울: 학지사.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Ebmeier, K. P., Donaghey, C., & Steele, J. D. (2006). Recent developments and current controversies in depression. *Lancet*, 368, 153-167.
- Fekete, S., & Macsai, E. (1990). Hungarian suicide models, past and present. In G. Ferrari(Ed.), *Suicidal Behavior and Risk Factors*. Monduzzi Editore, Bologna.
- Goldney, R. D. (2001). The media and suicide: A cautionary view.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2(4), 173-175.
- Gould, M. S. (2001). Suicide and the media.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 932, 200-224.
- Gundlach, J., & Stack, S. (1990). The impact of hyper media coverage on suicide: New york city 1910-1920. *Social Science Quarterly*, 71, 619-627.
- McGuire, W. J. (1978). An Information-Processing Model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in H. L. Davis and A. H. Silk(Eds.), *Behavioral and Management Sciences in Marketing*, Ronald Press, New York. 1978.
- Michel, K., Frey, C., Wyss, K. & Valach, L. (2000). An exercise in improving suicide reporting in print media.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1(2), 71-78
- Narveson, J. (1986). Moral philosophy and suicid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1(2), 104-107.
- Perlin, S. (1975). *Handbook for the study of suicide*. NJ: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 Phillips, D. P. (1989). Recent advances in Suicidology: The study of imitative suicide. In R. F. W. Diekstar, R. Maris, S., Platt, A. Schmidtke, G. Sonneck (Eds.), *Suicide and its prevention: The role of attitude and imitaion*. Leinden, The Netherlands: E. J. Brill
- Pirkis, J. & Blood, W. R. (2001a). Suicide and the media part I: Reportage in nonfictional media.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2(4), 146-154.
- Pirkis, J. & Blood, W. R. (2001b). Suicide and the media part II: Portrayal issue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2(4), 155-162.
- Pirkis, J. & Blood, W. R. (2001c). Suicide and the media part III: Theoretical issue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2(4), 163-169.
- Pirkis, J., Dare, A., Blood, R. W., Rankin, B., Williamson, M., Burgess, P. & Jolley, D. (2009). Changes in Media reporting of suicide in Australia between 2000/01 and 2006/07.

-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0(1), 25-33.
- Schmidtke, A., & Hanfner, H. (1998). The Werther effect after television films: New evidence for an old hypothesis. *Psychological Medicine*, 18, 665-676.
- Simpson, M. E., & Conklin, G. H. (1989). Socioeconomic Development, Suicide and Religion: A test of Durkheim's theory of religion and suicide. *Social Forces*, 67(4), 945-964.
- Stack, S. (1993). The effect of modernization on suicide in Finland: 1800~1984. *Sociological Perspectives*, 36(2), 137-148.
-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6-971
- Suominen, K. H., Isometsa, E. T., Henriksson, M. M., Ostamo, A. I., & Lonnqvist, J. K. (2000). Suicide attempts and personality disorde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2000, 102(2), 118-125.
- 논문투고일 : 2010. 05. 09
1 차심사일 : 2010. 05. 10
게재확정일 : 2010. 05. 19

The roles of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media reports of suicides in social learning effects

Joonsung Bae

Taekyun Hur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Media reports of suicides has been found to increase suicide cases that were temporally and spatially proximal to the reports, but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social learning, underlying the negative effects was not directly tested.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ognitive processes of social learning that media reports of suicides, especially positive contents toward suicides, might change people's perception, memory, and attitudes toward suicides positively and subsequently increase subsequent suicide intentions and behaviors. Through an internet survey, 300 adults reported their perception, memory, and attitudes toward news reports of suicides, and rated whether the suicides were described positively or negatively in the reports. Finally they reported their suicide intentions and behaviors. The results revealed that people tended to remember more the contents of suicide reports suggested to increase copycat suicides. Also, people were found to have an ironic view to suicide reports of media that they acknowledged the dangers of suicides reports and approached the reports with curiosity. More importantly, the perception of the positive reward that suicides might achieved through suicides was related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suicides and behavioral intention to suicides. The present findings was discussed in the social learning understanding of copycat suicid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uicide-pre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suicide, copycat suicide, media, social learning, media guideline